

● 신.약.편

장성민 <<< 한국성서학연구소 전임연구원

1. 본문 : 고린도전서 11장 17-22절

19:17 Τοῦτο δὲ παραγγέλλων οὐκ ἐπαινῶ ὅτι οὐκ εἰς τὸ κρείσσον ἀλλὰ εἰς τὸ ἥσσον συνέρχεσθε. 18 πρῶτον μὲν γὰρ **συνερχομένων ὑμῶν ἐν ἐκκλησίᾳ** ἀκούω σχίσματα ἐν ὑμῖν ὑπάρχειν καὶ μέρος τι πιστεύω. 19 δεῖ γὰρ καὶ αἵρέσεις ἐν ὑμῖν εἶναι, ἵνα [καὶ] οἱ δόκιμοι φανεροὶ γένωνται ἐν ὑμῖν. 20 **Συνερχομένων οὖν ὑμῶν ἐπὶ τὸ αὐτὸ οὐκ ἔστιν κυριακὸν δεῖπνον φαγεῖν.** 21 ἕκαστος γὰρ τὸ ἴδιον δεῖπνον προλαμβάνει ἐν τῷ φαγεῖν, καὶ ὃς μὲν πεινᾷ ὃς δὲ μεθύει. 22 μὴ γὰρ οἰκίας οὐκ ἔχετε εἰς τὸ ἐσθίειν καὶ πίνειν; ἢ τῆς ἐκκλησίας τοῦ θεοῦ καταφρονεῖτε, καὶ καταισχύνετε τοὺς μὴ ἔχοντας; τί εἶπω ὑμῖν; ἐπαινέσω ὑμᾶς ἐν τούτῳ οὐκ ἐπαινῶ.

2. 본문 번역

가. 개역개정

11:17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

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¹⁸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¹⁹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²⁰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²¹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²²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반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라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나. 새번역

^{11:17} 다음에 지시하려는 일에 대해서는 나는 여러분을 칭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모여서 하는 일이 유익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¹⁸ 첫째로, **여러분이 교회에 모일 때에**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있다는 말이 들리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는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¹⁹ 하기가 여러분 가운데서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환히 드러나려면, 여러분 가운데 파당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²⁰ **그렇지만 여러분이 분열되어 있으니, 여러분이 한자리에 모여서 먹어도, 그것은 주님의 만찬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²¹ 먹을 때에, 사람마다 자기 짐작 자기 저녁을 먼저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배가 고프고, 어떤 사람은 술에 취합니다. ²² 여러분에게 먹고 마실 집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멸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입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을 칭찬해야 하겠습니까? 이 점에서는 칭찬할 수 없습니다.

다. 공동번역개정

^{11:17} 그런데 이번에는 칭찬할 수 없는 일을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모여서 하는 일이 이익보다는 해를 자아낸다는 것입

니다. ¹⁸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모이는 교회 안에** 당파가 생겼다는 말을 들었는데 나는 그것이 전연 헛소문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¹⁹ 하기가 여러분 가운데서 진실한 사람이 드러나려면 분파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²⁰ **하지만 여러분이 한자리에 모여서 나누는 식사는 주님의 성찬을 나누는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²¹ 여러분은 모여서 음식을 먹을 때에 각각 자기 가져온 것을 먼저 먹어치우고 따라서 굶주리는 사람이 생기거나 하면 술에 만취하는 사람도 생기니 말입니다. ²² 각각 자기 집이 없어서 거기에서 먹고 마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느님의 교회를 멸시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창피를 주려고 그러는 것입니까? 내가 무엇이라고 말해야 하겠습니까? 이래도 여러분을 칭찬해야 하겠습니까? 이 일만은 칭찬할 수 없습니다.

라. NIV

^{11:17} In the following directives I have no praise for you, for your meetings do more harm than good. ¹⁸ In the first place, I hear that **when you come together as a church**, there are divisions among you, and to some extent I believe it. ¹⁹ No doubt there have to be differences among you to show which of you have God's approval. ²⁰ **When you come together, it is not the Lord's Supper you eat,** ²¹ for as you eat, each of you goes ahead without waiting for anybody else. One remains hungry, another gets drunk. ²² Don't you have homes to eat and drink in? Or do you despise the church of God and humiliate those who have nothing? What shall I say to you? Shall I praise you for this? Certainly not!

마. NRSV

^{11:17} Now in the following instructions I do not commend you, because when you come together it is not for the better but for the worse. ¹⁸ For,

to begin with, **when you come together as a church**, I hear that there are divisions among you; and to some extent I believe it. ¹⁹ Indeed, there have to be factions among you, for only so will it become clear who among you are genuine. ²⁰ **When you come together, it is not really to eat the Lord's supper.** ²¹ For when the time comes to eat, each of you goes ahead with your own supper, and one goes hungry and another becomes drunk. ²² What! Do you not have homes to eat and drink in? Or do you show contempt for the church of God and humiliate those who have nothing? What should I say to you? Should I commend you? In this matter I do not commend you!

바. 본문에 대한 사역

^{11:17} 제가 이것을 명하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도리어 해로움을 위해서 함께 모인다는 것을 칭찬할 수 없습니다. ¹⁸ 왜냐하면 무엇보다도 먼저 **여러분이 교회로서 함께 모일 때** 여러분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소식을 들어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어느 정도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¹⁹ 왜냐하면 여러분들 가운데 옳다고 인정을 받은 사람들이 분명하게 드러나기 위해서 여러분들 가운데 파당도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²⁰ 그러므로 여러분이 한 장소에 모이긴 하지만 **그것은 주님의 만찬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²¹ 왜냐하면 먹을 때에 제 각각 각자의 음식을 먼저 취하기 때문에 어떤 이들은 주리고 어떤 이들은 취하기 때문입니다. ²² 여러분들은 먹고 마실 집이 없습니까? 혹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가지지 못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무엇이라 말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을 칭찬해야겠습니까? 이 일로는 칭찬할 수 없습니다.

3. 동사분해

가. 17절

παραγγέλλων(*παραγγέλλω*[to command, charge]의 현재, 능동태, 분사, 남성, 단수, 주격, ‘명령하는’) / *ἐπαινῶ*(*ἐπαινέω*[to praise]의 현재, 능동태, 직설법, 1인칭, 단수, ‘내가 칭찬한다’) / *συνέρχθε*(*συνέρχομαι*[to come together]의 현재, 중간태, 직설법, 2인칭, 복수, ‘너희들이 모인다’)

나. 18절

συνερχομένων(*συνέρχομαι*[to come together]의 현재, 중간태, 분사, 남성, 복수, 속격, ‘모이는’) / *ἀκούω*(*ἀκούω*[to hear]의 현재, 능동태, 직설법, 1인칭, 단수, ‘내가 듣는다’) / *ὑπάρχειν*(*ὑπάρχω*[to be, exist]의 현재, 능동태, 부정사, ‘존재하는 것’) / *πιστεύω*(*πιστεύω*[to believe]의 현재, 능동태, 직설법, 1인칭, 단수, ‘내가 믿는다’)

다. 19절

δεῖ(*δεῖ*[to be necessary]의 현재, 능동태, 직설법, 3인칭, 단수, ‘그(녀)가 필요하다’) / *εἶναι*(*εἶμι*[to be]의 현재, 능동태, 부정사, ‘존재하는 것’) / *γένονται*(*γίνομαι*[to become]의 단순과거, 가정법, 중간태, 3인칭, 복수, ‘그(녀)들이 ~이 된다면, 있다면’)

라. 20절

συνερχομένων(*συνέρχομαι*[to come together]의 현재, 중간태, 분사, 남성, 복수, 속격, ‘모이는’) / *ἔστιν*(*εἶμι*[to be]의 현재, 능동태, 직설법, 3인칭, 단수, ‘그(녀)가 ~이다’) / *φαγεῖν*(*ἐσθίω*[to eat]의 단순과거, 능동태, 부정사, ‘먹는 것’)

마. 21절

προλαμβάνει(*προλαμβάνω*[to take beforehand]의 현재, 능동태, 직설법, 3인칭, 단수, ‘그(녀)가 먼저 취한다’) / *φαγῆναι*(*έσθίω*[to eat]의 단순과거, 능동태, 부정사, ‘먹는 것’) / *πεινᾶν*(*πεινάω*[to hunger]의 현재, 능동태, 직설법, 3인칭, 단수, ‘그(녀)가 주린다’) / *μεθύει*(*μεθύω*[to be grunken]의 현재, 능동태, 직설법, 3인칭, 단수, ‘그(녀)가 취한다’)

바. 22절

ἔχετε(*έχω*[to have, hold]의 현재, 능동태, 직설법, 2인칭, 복수, ‘너희들이 가지고 있다’) / *έσθιεν*(*έσθίω*[to eat]의 현재, 능동태, 부정사, ‘먹는 것’) / *πίνουν*(*πίνω*[to drink]의 현재, 능동태, 부정사, ‘마시는 것’) / *καταφρονεῖτε*(*καταφρονέω*[to think little of, despise, look down on]의 현재, 능동태, 직설법, 2인칭, 복수, ‘너희들이 멸시한다’) / *καταισχύνετε*(*καταισχύνω*[to put to shame]의 현재, 능동태, 직설법, 2인칭, 단수, ‘너희들이 부끄럽게 한다’) / *ἔχοντες*(*έχω*[to have, hold]의 현재, 능동태, 분사, 남성, 복수, 대격, ‘소유하고 있는’) / *εἶπω*(*λέγω*[to say, speak, tell]의 단순과거, 능동태, 가정법, 1인칭, 단수, ‘내가 말한다면’) / *ἐπαινέσω*(*έπαινέω*[to praise]의 단순과거, 능동태, 가정법, 1인칭, 단수, ‘내가 칭찬한다면’) / *ἐπαινῶ*(*έπαινέω*[to praise]의 현재, 능동태, 직설법, 1인칭, 단수, ‘내가 칭찬한다’)

4. 용어 및 문법 사항 설명

가. 용어 설명

1) *παραγγέλλων*(17절) : *παραγγέλλω*[to command, charge]의 현재, 능동태, 분사.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차례로 메시지를 전하다, 선언하다, 명령하다.” 이 동사는 특히 하급자에 의해서 열을 따라 전달되

던 군사 지휘관의 명령을 전달할 때 사용되었다.

2) *συνερχομένων ὑμῶν ἐν ἐκκλησίᾳ* (18절) : 속격 독립구문으로서 문자적으로는 “너희가 교회로 함께 모일 때”라는 뜻이다. 각 교회가 가정 교회 형태로 모였던 바울 당시에는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직 존재하지 않았으며, *ἐν ἐκκλησίᾳ*는 장소적인 의미(‘교회에서’)로 사용된 것이 아니다. *συνέρχεσθαι ἐν ἐκκλησίᾳ*는 본래 정치 조직체의 회의를 위한 모임을 나타내는 잘 알려진 헬라식 표현이었다. 바울은 이를 기독교적인 의미로 차용하여 주의 만찬을 축하하기 위해 모인 제의적 모임의 성원들을 표현하는 말로 사용하고 있다. 14장 23절과 26절에서도 동일한 표현이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 이 용어는 아마도 예배를 위해서 모인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을 표현하는 준-전문 용어(a semitechnical term)로 사용되었을 것이다(Gordon D. Fee, *The First Epistle to the Corinthians*[NICNT; Grand Rapids: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87], 536). 따라서 이러한 용례를 고려하여 이 말은 한글번역처럼 “교회에 모일 때에”(개역개정, 새번역 등)가 아니라 “너희가 교회로서 모일 때에”(when you meet as a church)라고 번역될 수 있다(NIV, NRSV, J. Fitzmyer, *First Corinthians: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and Commentary*[Anchor Yale Bible vol. 32;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08], 432 등). 아울러 이 표현은 같은 절의 *σχίσματα*(분열)나 19절의 *αἱρέσεις*(분파) 등과 대조를 이루면서 교회로 모였으나 하나 되지 못하는 고린도교회의 아이러니한 상황을 표현하고 있다. 바울은 20절에서도 동일한 동사를 사용하면서 분열 가운데 한자리에 모여 행하는 주님의 만찬은 “주의 만찬을 먹는 것이 아니다!”(*οὐκ ἔστιν κυριακὸν δεῖπνον φαγεῖν*)라고 지적한다. 고린도교회 그리스도인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교회로서 하나 됨의 표지였지만, 모임을 갖는 방식은 오히려 불평등과 하나 되지 못한 모습을 부각시켜 보여 주었을 뿐이었던 것이다.

3) *δεῖ γὰρ καὶ αἱρέσεις ἐν ὑμῖν εἶναι* (19절) : 문자적으로는 “왜냐하면 너희 가운데 당파도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내에 분열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중 일부는 그러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힌 후, 그 이유를 “너희 가운데 당파도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제시한다. 그러나 교회의 하나 됨을 강조하고 있는 바울이 이를 역설적인 의미로 사용한 것인지 체념적인 의미로 사용한 것인지는 분명치 않다. 일부 학자들은 장차 거짓선지자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수의 예언을 염두에 둔 종말적인 표현으로 이해하기도 한다(마 7:15; 24:11 등 참조).

4) ἐπὶ τὸ αὐτό (20절) : 문자적으로는 “같은 장소에, 한 곳에.” 이 말은 단순히 고린도교회 그리스도인들이 한 장소에 모였다는 것을 묘사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들이 공동의 목적을 위해서 모였다는 것을 함의한다(행 1:15; 2:1 참조). 물론 본문에 암시된 공동의 목적은 함께 식사를 나누고 주의 만찬을 갖는 것이었다.

5) κυριακός δεῖπνον(20절) : “주님의 만찬.” 관사 없이 사용된 이 용어는 예수가 죽기 전 제자들과 함께 가졌던 저녁 식사를 기념하기 위한 그리스도인들의 저녁 식사를 일컫는 전문용어이다. κυριακός δεῖπνον이라는 용어는 신약성경에서 유일하게 이곳에서만 나타나며, 당대 헬라어에서 κυριακός라는 용어는 “주인에게 속한”(belonging to an owner)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었다. 이 단어는 파피루스에서 로마 황제의 보물이나 황제를 섬기는 것, 황실의 재정 등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될 경우에는 “황제에게 속한, 제국의”(belonging to Caesar, imperial)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을 차용하여 신약성경에서 κύριος가 갖는 통상적인 의미(“주님”)와 부합되게 사용하였다.

6) ἐν τῷ φαγεῖν (21절) : “먹을 때에.” 어떤 이들이 다른 사람에게 앞서 식사를 시작하던 시간이나 영역을 지시하는 말이다. 어떤 이들은 공동의 식사 시간에 자기 음식을 가져와서 다른 이들, 즉 가난한 자들이 자기 몫을 나눠 먹는 것을 용인하지 않았다.

7) μεθύει(21절) : μεθύω[to be grunken]의 현재, 능동태, 직설법. 현재 시제는 당시 진행 중이었던 행동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사람들의 술 취한 행태가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행동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다.

나. 문법 사항 설명

신약성경에서는 현재형이 완료의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예를 들어 현재형인 ἦκω(to be present)는 “들어왔다”(have come)라는 완료의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며(눅 15:27; 요 4:47 등) 마찬가지로 현재형인 πάρεμι(be present)가 “도착했다”(have arrived)라는 완료의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18절의 현재 능동태 동사 ἀκούω 역시 완료적인 의미를 가진 현재로서 “내가 듣고 있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들어서 알고 있다”(I am informed) 정도의 의미이다(Ernest. D. W. Burton, *Syntax of the Moods and Tenses in New Testament Greek*[Edinburgh: T&T Clark, 1898], 10).

또한 의문문을 이끄는 두 부정어(negative) οὐ와 μή는 각각 긍정적인 답변과 부정적인 답변을 기대하는 취지로 사용되지만, 함께 사용되는 μή οὐ는 확인하는 진술과 동일한 의미의 수사학적 의문문에 사용되기도 한다(롬 10:18, 19; 고전 9:4, 5 등). 22절의 의문문인 μή γὰρ οἰκίας οὐκ ἔχετε εἰς τὸ ἐσθίειν καὶ πίνειν;(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역시 “너희는 분명 먹고 마실 집을 가지고 있다”라는 강한 확인의 뜻을 가진 수사학적 의문문이다(C. F. D. Moule, *An Idiom Book of New Testament Greek*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4], 156).

5. 설교에 적용하기

바울은 본문에서 고린도교회의 분열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교회로서 모이는 모임도 올바른 신앙적 태도에 입각한 것이 아니라면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해가 된다고 지적한다(17절). 그들은 한 교회로서 모이는 했지만(18절) σχίσματα(분열)나 αἵρέσεις(분파)의 모습을 보이면서

하나 되지 못하는 아이러니한 상황만을 야기하고 있었다. 고린도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비록 공동의 목적(성만찬과 식탁 교제)을 위해서 한 장소에 함께 모여 교회로서의 모임을 정기적으로 갖긴 하지만, 서로 존중하지 못하고 차별하며 분열하는 모습을 보이는 한, 도리어 하나님의 교회를 멸시하고 약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해로운 모임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바울은 고린도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정기적인 모임을 갖긴 했지만, 그들이 서로 분열하는 가운데 한자리에 모여 행하는 주님의 만찬은 “주의 만찬을 먹는 것이 아니다!”(οὐκ ἔστιν κυριακὸν δεῖπνον φαγεῖν)라고 지적한다. 고린도교회 그리스도인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교회로서 하나 됨의 표지였지만, 모임을 갖는 방식은 오히려 불평등과 하나 되지 못한 모습을 부각시켜 보여 주었을 뿐이었던 것이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고린도교회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함께 모여 주님의 만찬을 먹기 전에 반드시 몸(τὸ σῶμα=교회)을 분별해야 한다고 권면한다(29절). 주님의 몸 된 교회의 지체들을 돌아보고 서로 존중하며 돌보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27절 이하에서 그렇게 교회의 각 지체들을 돌아보고 사랑하는 태도 없이 주의 떡이나 잔을 먹고 마시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바울의 이러한 지적은 예배와 모임 자체의 규모나 정연함을 숭상하면서 상대적으로 실질적인 내용이나 질에 무관심한 한국 교회에 적지 않은 경고를 던진다고 할 것이다.

∴ **장성민** 경북대학교(B.A.)를 나와 장로회신학대학교(M.Div., Th.M.)에서 공부했다. 현재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박사과정 신약학 전공 중에 있으며 본 연구소 전임연구원으로 있다.